어린양과 사자, 제로원 오리지널

(계5:8~14)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린양과 사자, 제로원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린양과 사자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이십니다.
이 역설적이고 모순돼 보이는 어린양과 사자의 통합이 우리가 말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제로원 영적 원리의 오리지널한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린양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사자하고나 맞아요.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장로 중에 한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자에게는 맞는 얘기이지만, 어린양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양이 이 모든 속성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어린양이 있다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체로 충만하다는 얘긴데, 어린양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여간 목자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린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 어린양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런 것은 어린양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일곱 가지 속성이 그대로, 한 가지만 부 대신 감사로 바뀌면서, 하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7장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린양에게 일곱 가지 속성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역시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서부터 계시록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7가지 속성들이 예수님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인 것은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고백 안에서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조금도 하나님아버지보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하나님 되심의 속성은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5장 12절의 말씀 속에는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7장 12절에 가보면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가지 속성이 어린양이신 예수님에게는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는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지만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동등 됨을 비우신 거예요.
일곱 가지 속성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비우신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태를 띠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어린양은 그 속성을 우리가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어린양은 능력이 제로, 부가 제로, 지혜가 제로, 힘이 제로, 존경과 귀하게 여겨질 자체 내의 자질 제로, 영광 받을 자질 제로, 찬송 받을 이유 제로, 전부 제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면서도 당신의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제로 상태로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제로다, 내 능력과 부와 내 힘과 지혜는 제로다, 그렇게 제로가 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하나님과 partnership의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단 한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관계가 있는데, 이 파트너쉽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능력 부 지혜, 이 모든 것이 모자라는 것이 없으시니까, 당신을 제로 상태로 놔버린 겁니다, partnership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100%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하나님아버지께 속한 속성들이 어린양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린양 되심으로써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이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당신의 힘을 제로로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셔서 당신의 능력을 제로로 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셔서 당신의 지혜를 제로로 놓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당신도 존귀하시지만 당신이 존귀함을 받는 것을 제로로 놓으시고…, 모든 걸 제로로 놓으셔서 어린양의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린양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양인데,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양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처럼 어린양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나타나시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사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 능력을 제로로 놓고, 하나님의 힘을 보면서 내 힘을 제로로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내 지혜를 제로로 놓고 산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오실 예수님이 미리 임하신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나 노자, 이런 분들께서 지혜를 추구하시고 인류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편다는 얘긴데, 그렇게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두루마리 안에는 분명히 내 인생도 적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백합화가 폈다가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 속에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쉽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갖습니까?

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 하나님이 많습니까, 내가 많습니까?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주님조차도 당신을 비우셨는데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시니까 내 힘을 제로로 놓습니다, 내 지혜를 제로로 놓습니다, 힘과 권능도 다 마찬가집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내 능력을 제로로 놓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제로로 놓으려고 하면 제로로 놓아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권능이 월등하시니까 그분의 그러한 면모를 보고 내가 내 힘을 제로로 놓고, 내 의지를 제로로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시니까 내 계획을 제로로 놓고… 하려고 해도 안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싶고 바라는 소원이 생기는 이것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제로로 놓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제법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등종교에서라도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도를 닦아도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9절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천상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인생의 인을 떼 주셔야 내 인생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진행되어갈 텐데,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보면, 나사렛에서 활동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는 나사렛에 안 계십니다.
이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은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육체를 입고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죽으셨습니다.
일찍이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긴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공간의 제약 없이 오셔서 함께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어린양 되심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 것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양 되심의 원리가 내 것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어린양으로 자처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제로다'
어린양이 그렇잖아요, 어린양은 아마도 닭이 와서 쪼아도 도망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병아리가 와서 제제거리면 깜짝 놀라서 뒷걸음칠 겁니다.
그런 어린양 되심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건 뭐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 100% 우리에게 임해서 펼쳐지려고 하니까 방해를 받아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내 소원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린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양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물 먹고 풀 먹는 것에 대한 소원도 없을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물 먹이고 풀 먹이니까 쫓아다니는 거지, 자기 생존의 가장 긴급하고 절실하고 요긴한 풀 먹는 것과 물 마시는 것조차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양 되심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사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사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등 하는 사람, 그게 사자 아닙니까?
사자되는 데에 내 힘만으로는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보충하려고 그러죠.
이건 어린양이 아니에요, 아주 사나운 표범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 되심, 제로 됨,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파트너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과 견주어볼 때, 내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 영광 제로, 내 존귀함 제로, 내 칭찬 제로, 하나님께 칭찬 돌리고, 힘 제로 하나님 힘, 권능 제로 하나님 권능, 지혜 제로 하나님 지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적인 체질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먹을 때 비로소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1: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니까 '쟤를 저렇게 놓아두었다가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 어린양 되신 분으로 자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사자가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이 뭡니까, 여러분?
왕 노릇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 같습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됐다고 말할 때는 무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왕 노릇한다는 것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왕은 자기 행동의 원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와 왕이 다른 게 뭡니까?
신하는 신하의 행동원리를 왕에 대한 관계에서 갖습니다.
왕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하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일 원리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날 때, 마구 때린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그 당시 유대사회 내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최고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모임인 거예요, 유대사회 왕의 모임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초대 기독교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종의 신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왕 노릇할 수가 있는 거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린양 됨의 제로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왕은커녕 계속 종노릇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노예 신분으로 상전을 받들고 상전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 노릇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노예로서 살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드라마 얘기했는데 오늘 2편을 얘기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보디발이 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 보디발이라는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요셉 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 역을 맡은 사람이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얘기하면 그것에 복종을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진짜로 드라마 속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드라마 속에서 주인 역할 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종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잘못하면 이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대사를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감독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감독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너 왜 그런 식으로 연기하느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독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감독이 노예를 하라고 하니까 노예를 하는 거지 그 역할을 맡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 되라고 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별 볼일 없이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어도 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양입니다.
어린양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면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에 하나님이 시키시려면 노예 말고 주인 시켜주시지…
요셉이야기에서도 그랬지만, 노예의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간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그런 지위라도, 이제까지 우리는 별 볼일 없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지금 나의 형편과 지위와 신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어린양 됨의 속성을 나의 속성으로 받아들였다면, 진작 내게 사자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까지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사자되기를 원하면서 사자 못 되고 있는 나 자신에 원망과 한을 품고 사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사자될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이 조그만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로원 원리의 오리지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양과 사자가 한 인격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역설 속에 제로원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의 인생,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어린양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개벽이 될 수 있는 원리, 그게 바로 제로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로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비칠 때 우리가 할 일은 또 거기서 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제로가 되는데 칭찬과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왜 내게 있겠느냐?'
그런데 그 단계에서 내가 냉큼 내 것으로 받아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린양 됨이 끝나버리는 거죠.
어린양 됨의 속성이 끝나버리면 사자됨도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어린양 됨으로써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두루마리가 주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 자신의 두루마리가, 우주가 어떻게 변한다 뭐… 이런 것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기록하신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다 펼쳐져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린양이 사자고 사자가 어린양인 이 역설적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제로원 원리의 오리지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두루마리가 주님을 통해 펼쳐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